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 議 會 議 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8月25日(月) 午前11時

第62回(臨時會)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1. 開會辭
1. 閉式

(司會: 議事係長 表錫龜)

(11時00分 開式)

○議事係長 表錫龜 지금부터 제62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목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목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代理 楊鎮武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봄계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62차 임시회의 개의사를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신하게 됨을 말씀 드리고 개회를 할까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담석증으로 고대 병원에 지난 금요일 갑자기 입원하시어 치료에 있으며 앞으로 며칠 더 입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병문안을 원하신다면 종료후 사무국 의정계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장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한자리에서 봄계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장마철에는 여러 곳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성북 지역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재난 예방에 앞장서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보다도 지리하고 무더웠던 장마와 폭염도 서서히 지나고 바야흐로 풍성한 결실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5월에 임시회를 마친후에 석달여만에 회의를 갖게 되겠습니다마는 폐회중에도 상임 위원회별 수련회를 비롯해 중국순의현 방문 그리고 지역개발위원회에서 관내 위험시설물 현장답사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뿐만아니라 서울시 의장단 협의회 주관의 전국 지방자치 세미나에도 참석하시는 등 보고 배우고 연구하는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의정활동 자체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솔선의식이 있으신 의원여러분이 계시는 한 우리 성북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익히 언론 보

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6일 새벽 대한항공 801편 참사장면을 하루 종일 숨죽여 지켜 보셨을 것입니다. 이 자리로 빌어 다시한번 이번 참사로 숨진 회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시신이라도 유가족 품으로 송환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국민 모두가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아사태는 말로만의 좋은 우리 경제의 허상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한참 부도를 막고자 정치인 경제인 모두가 힘쓰고 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이런 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재정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바꾸고 우리가 경제를 살리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50만 성북구민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함께 노력하고 연구하고 봉사하는 책임과 소임을 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같이 노력합시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그리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지만 오늘도 우리 지역주민생활과 관계되는 중요한 안건들을 상정하여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일군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짧으나마 개회식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表錫龜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時10分 閉式)